

“ 대동화합으로 새로운 도약 이루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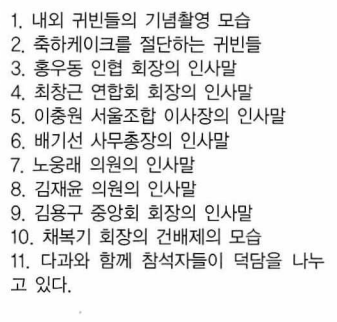
[행사인사] 인쇄인 F99002



2006년 인쇄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3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쌍림동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창근), 서울인쇄정보조합(이사장 이충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배기선의원(열린우리당, 사무총장), 노웅래의원(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 김재윤의원(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유기정 세계중소기업연맹 명예총재, 채복기 인쇄연합회 전회장, 강원희 한국잡지협회 회장, 박충일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 고수근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허철중 대한인쇄문화협회 전회

장,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 김직승 인쇄연합회 전회장, 이철안 울산경남인쇄조합 이사장, 하계민 부산인쇄조합 이사장, 박의현 대구경북인쇄조합 이사장, 심웅선 인천인쇄조합 이사장, 황금주 광주전남인쇄조합 이사장, 이명원 강원인쇄조합 이사장, 박용기 파주인쇄단지 이사장, 강동환 제일인쇄조합 이사장, 김충진 한국전시조합 이사장, 김성빈 인쇄학회 회장, 전영표 상록정보문화연구소 이사장 등 내외 귀빈과 인쇄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홍우동 인협회장, 최창근 연합회장, 이충원 서울조합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배기선총장, 노

웅래·김재윤의원, 김용구 중앙회회장의 축하 덕담, 축하케익 절단, 채복기 회장의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홍우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동안 난관을 극복해 오시느라 애써 오신 인쇄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인협에서는 금년에 가칭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국내외 도서전에 참가하여 인쇄물 수출증대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오는 9월에 10일 정도를 인쇄주간으로 설정하여 청주시, 세계직지문화협회, 인쇄단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첨단산업 분야도 인쇄기술로 대체시킬 것들이 대단



1. 내외 귀빈들의 기념촬영 모습
2. 축하케이크를 절단하는 귀빈들
3. 홍우동 인협 회장의 인사말
4. 최창근 연합회 회장의 인사말
5. 이충원 서울조합 이사장의 인사말
6. 배기선 사무총장의 인사말
7. 노웅래 의원의 인사말
8. 김재윤 의원의 인사말
9. 김용구 중앙회 회장의 인사말
10. 채복기 회장의 건배제의 모습
11. 다과와 함께 참석자들이 덕담을 나누고 있다.



히 많으며 인쇄의 발전없이는 모든 문화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인쇄인 모두 화합하고 단결해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업계의 난관을 극복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이어 최창근 인쇄연합회장은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 깊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기정이 화평하고 사업이 성공하길 바란다"면서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폐지된다고 해도 움츠러들지 말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확대되는 만큼 낙찰가격 85%선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이 제도를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이충원 서울인쇄조합이사장은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면서 "지난해 힘들었던 기억은 모두 던져버리고 희망찬 병술년을 맞이하자"고 역설했다.

배기선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은 "집권 여당으로서 뒷바라지 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도울 것이며 인쇄인들의 소망이 이뤄지는 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직지를 비롯한 아시아문화가 서양문화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21세기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고 문화한국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인터넷의 발달로 종이인쇄 시대는 막이 내렸다는 말이 있지만 종이소비량이 매년 4~5%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쇄는 꾸준히 발전

함을 알 수 있다"면서 "인쇄업계 지원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문화,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인쇄인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여러분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도록 힘쓸 것"이라면서 "인쇄문화진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예산도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구 중앙회장은 "인쇄산업의 중심은 여러분이고 문화산업의 척도가 인쇄라고 할 수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